



조정중재사례 소개

명예훼손 사례

■ 우유대리점 간 담합했다는 보도,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으로 조정성립

A지역신문은 모 지역의 대형마트 납품을 놓고 우유대리점 간에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기존의 우유대리점 업체들인 신청인 측이 후발 대리점의 신규 납품을 저지하기 위해 담합 등을 통한 도 넘은 실력행사도 불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.

신청인은 해당 기사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실었고 자신은 담합을 한 적이 없으며, 정정보도문과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
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.

초상권 침해 사례


■ 백화점 쇼핑모습 게재, 손해배상으로 중재결정

B신문사는 백화점, 대형마트, TV홈쇼핑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사실상 '연중 세일'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백화점 판매대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신청인들(예비 신랑신부)의 사진을 게시했다.

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사진을 본 주변 지인들로부터 예단을 행사장에서 구입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고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,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
이후 당사자 간에 중재신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, 담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결정을 내렸다.

@ 독자마당

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「언론  사람」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,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(pac_news@pac.or.kr)로 보내주세요.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.

- ‘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’을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. 언론에서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있는 사실은 제쳐두고 흥미위주로 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큰 일이 난 것처럼 보도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, 실상 제대로 된 정정보도문이나 기사, 사과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(only2mj)
- ‘번역의 어려움을 시사하다’라는 글 잘 봤습니다. 단어 하나의 해석이 아닌 큰 줄기를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. 특히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확고하고 명료한 입장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. (mlasadog)
- 최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‘머니볼’의 분석과 선택은 기대 이상의 탁월한 결과를 달성하게 하며, 사람 각각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팀웍으로 나타날 때 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(k2dragk2drag)
- 제목에 사람이 있는 만큼 보다 편안한 글이길 바랐는데 민감한 주제들이라서 그런지 어려운 내용과 딱딱한 문체가 아쉬웠습니다. 다음 호에는 독자에게 친근하고 친숙한 기사들을 기대해보겠습니다. (wizard22_kr)